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 누가 뛰나 3면·여야 총력전 4면

공천폐지·安 신당...‘안갯속’ 속타는 입지자들 물밑 행보만

내년 6·4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각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 간 치열한 경쟁이 관련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철수 신당’ 창당 시점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교육감 선거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향후 선거일정의 주요 ‘열쇠’를 쥐고 있는 여야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예산 정국 등으로 강경 대치하고 있는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내년 선거전망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의 최대 변수와 관심사는 무엇보다 안철수 신당 창당에 따른 민주당 대 신당 후보들 간 대결이다.

하지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28일 창당을 위한 정치세력화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창당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 ‘신당 후보’를 꿈꾸고 있는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정수·선거구 획정 교육감 선거방식 ‘깜깜’ 국회 선거법 개정 촉박

특히 신당 창당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늦어질 경우 신당 내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선 일정과 ‘경선 룰’ 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지 않는 이유 중 또 하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택’이 달라져 여전히 각 입후보 예정자들은 향후 정치일정을 관망하면서 물밑 행보만 지속하고 있다.

폐지될 경우 인지도 및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 자치단체장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정치신인 또는 일부 입지자들은 다른 선거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선거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거전에 뛰어들 수 없어서다.

반면,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당내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으면서 경선 룰과

일정 등이 ‘오리무중’인 점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광역의원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에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광역의원 정원 숫자 문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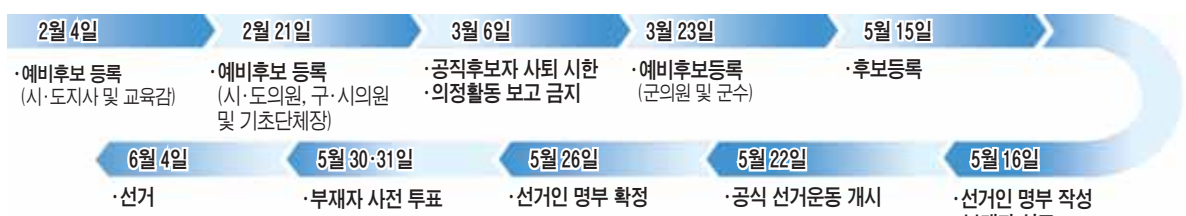
교육감 선거도 ‘교육경력 5년’의 경력 일정과 광역단체장과의 공동 공약 등을 내세우는 ‘공동 등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 광역의원 정원 문제, 교육감 선거 등을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하루빨리 열려 입후보 예정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개혁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경선 일정과 경선 룰을 정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세종자치특별시장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61명(세종시의원 13명 별도), 기초의원 2888명, 시·도교육감 17명을 동시에 선출한다.

■ 6·4 지방선거 주요 일정



내년 도로예산 영남이 호남의 2.5배

고속도로 1곳 667억 vs 9곳 8755억원 미착공사업은 비슷...국토균형발전 역행

영남지역 도로건설 예산이 호남의 2.5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김영록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내년도 도로사업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국도

건설 등 호남지역 예산은 9849억원이었지만 영남은 2조5105억원으로 호남의 2.5배나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당 도로들의 총사업비를 비교해도 호남은 10조470억원인 반면 영남은 호남의 3.6배인 3조7955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부문별로 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호남은 ‘담양~경남 함양~경북 성산’에 이르는 성산~담양고속도로 667억원 단 1개뿐이었다.

반면 영남은 부산순환고속도로 2092억, 상주~영덕고속도로 1571억, 울산~포항고속도로 1002억, 병정~부산고속도로 981억, 함양~울산고속도로 499억, 대구순환고속도로 400억원 등 9개 사업 8755억원으로 영·호남 지역편차가 13.1배나 됐다.

고속도로 건설 총사업비를 비교하면 영남이 호남보다 24.9배 더 많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국도건설도 호남은 전북 23개 2896억, 전남 35개 4747억, 광주 1개 103억원 등 총 59개 사업 7746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영남은 경남 34개 5778억, 경북 37개 5184억, 부산 2개 360억, 울산 2개 525억원 등 총 75개 사업 1조1847억원으로 호남의 1.5배나 됐다.

김 의원은 “전남은 낙후도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시~도별 도로로 길이에서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균형 개발이 시급하다”며 “국민대통합은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 예산에 호남지역 도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공무원들 연말 나눔행사
광주시 북구청 소속 20~30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년 간부회’ 회원들이 3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캘리그라피’(Calligraphy·그림글자) 머그컵·명함집과 유자차·쿠키 등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 250만원은 장애인시설·저소득층 세대 등에 전달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임 공무원 수습근무도 직급 차별?

광주시 배치 사무관들 느슨한 근무 태도 ‘눈살’

“점심시간 꼭 지키세요!”

광주시는 최근 연말·연시를 앞두고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점심시간 준수 등 복무기강 확립을 독려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넘긴 시각에도 시청 주변 커피숍 등을 몰려다니는 한 무리의 공무원이 있었다. 행정·기술고시에 합격해 광주시청에 배치된 수습 사무관(5급)들이었다. 이들은 평소 업무시간에도 시청 1층 커피숍 등에 모여 잡담을 나누는 등 나태한 근무태도로 직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신임 사무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지방 수습 근무제도가 걸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올해 임용된 5급 신임 사무관 321명 중 광주시에 10명을 배치했다. 지난해까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주간 지방실무 교육을 받았다. 안행부는 내년부터 지방 근무 기간을 최

대 1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 행정현장에 나온 수습 사무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한데다, 이들의 근무 태도도 엉망이어서 ‘벌써부터 간부 공무원의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시의 수습 사무관 10명은 각 부서별로 1명씩 배치돼 각 2개씩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지방행정의 현장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다. <2면에 계속>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봉사활동 화보 ▶9면

LIRIKOS

MARINE TRIPLE TREATMENT
90.92%

400ml

수분.미백.탄력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야
피부는 완벽해지니까

리 리 코스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

3가지 마린 플랑크톤 에너지가 완성한 밸런싱 케어-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가 숨어있던
수분, 미백, 탄력의 피부 잠재력을 깨우다